

경계연구의 동향: 중·동부 유럽을 사례로

김상빈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원

1. 연구목적

지난 세기의 마지막 10년은 유럽의 정치 지형상에서 수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독일의 통일과 소련 연방의 해체와 신생독립국가의 탄생, 이들의 독립국가연합 결성, 과거 소련의 위성국가로 간주되었던 동유럽국가들의 국경개방 및 체제전환, 남동부 유럽의 발산 반도에서 유고연방의 해체와 그 후속국가들의 탄생등등. 이러한 정치적 변동들은 엄청난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간구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연방해체에 따른 수 많은 국가의 탄생은 과거의 한 國家의 내부 행정경계가 새로운 국경으로 바뀌기도하고, 독일 통일에 의해서 과거의 국경이 다시 주간 경계로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근대 지리학의 출발부터, 특히 정치지리학 분야에서 경계연구는 중요한 주제로 자리를 잡았으며, 제 1, 2차세계 대전 사이의 기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리학 분야에서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1989/90년을 전후한 유럽 정치상황의 변동은 다시 한번 경계연구의 붐(boom)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리학 분야에서 경계연구의 연구동향을 정리해보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는 일이며, 아직도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 유럽의 사례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1990년대 이전 경계연구의 주요 연구주제는 무엇인가?
- 2) 1990년대 이후 유럽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변동의 시기에 대응하여 경계연구는 어떠한 형식으로 반응하였는가?
- 3) 국경없는 유럽을 지향하는 유럽연합의 성립과 유럽연합의 확대가 경계연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 연구의 범위

1990년대 이후 경계 연구가 붐을 이룸에 따라,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중 대다수는 이론에 입각해서 연구를 진행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사례지역을 선정해서 몇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기 보다는 어떠한 주제가 어떠한 입장에서 연구되는지 그 경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의 연구동향에서 특징을 파악해보기로 하겠다. 본 논문의 제목에서 제시한 것 처럼, 중부 유럽과 동부유럽을 사례로한 논문이 주요한 분석의 대상이며, 필요에 따라서 (가령, 경계에 관련된 이론을 다루는 논문)는 이 지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다루어짐을 미리 밝힌다. 또한 여기서 주요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독일어권에서 출판된 논문과 영어권에서 출판된 논문이 주요 대상이다.

3. 경계연구의 동향

1) 경계의 의미

공간적인 요소로서 경계의 종류와 역할의 조사를 위한 수 많은 접근법이 있다. 경계의 역사적 지리적 소與는 다양한 이론적 측면에서 조사되었고 분석되었다. 여기서 파생한 다양한 이론적 방법론적 다양성

은 거의 개관하기 힘든 결과를 가져왔다. 경계'라는 단어는 영어권에서 여러 가지가 있다. 즉, boundary, frontier, border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다른 언어권에서는 별다른 구분없이 쓰이고 있다. 독일어권에서는 경계(boundary, Grenze)라는 개념은 거의 항상 수 많은 문헌에서 접경지역(border region, Grenzräume) 이라는 개념과 함께 나타난다.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Franz의 정의에 의하면 경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경계(Grenze)라는 개념은 중고지독일어 granitze, 슬라브어의 grani(구석, 모퉁이) 처음에 Luther의하여 처음 도입되었고, 고대 독일어의 mark에 해당하며, 또한 원래 경계의 표시(Grenzmark), 두 지역을 서로 구분하게 해주는 취락이 적은 혹은 취락이 없는 접경지역(Grenzraum)을 의미한다. 점차 Grenze는 선으로 고정되었으며, 의미도 축소되었다. 경계(Grenze)는 상이한 정치적, 교회적, 경제적 혹은 민족적 소속을 구분하지만, 또한 자연지역은 아주 드물게 구분한다.” (Franz, G. 1970)

안테 (Ante)의 정의에 의하면, 아주 일반적으로 한 구역의 인식되고, 알려진 끝이다. 경계는 자연적인, 문화적인 혹은 정치적 특징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구분하는 분리선으로 파악될 수 있다. (Ante, U. 1995)

2) 경계연구의 시대적 변천

경계연구는 지리학내에서, 특히 정치지리학에서 지속적인 연구 주제로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초점을 달리하여 끊임없이 연구방법상의 변화가 있었다.

경계연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대표적인 논문은 Minghi¹⁾ (1963/1977)의 논문이다. 그 뒤를 이어 1990년대 들어 Heller (1993)는 인문지리학적인 시각에서 경계와 접경지역에 대한 문헌을 (연구대상, 문제제기, 목표설정을 바탕으로) 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1. 경계선의 진로방향에 대한 확장과 그 성격; 2. 경계의 발전과 국가의 행동에 대한 규정; 3. 경계간의 갈등; 4. 문화경관의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 5. 접경지역에서 국가의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발전경향의 효과; 6. 소외, 낙후 지역으로서의 접경지역 (공간정비계획, 접경지역의 지원조치와 효과 포함); 7. 접경지역 주민의 행동에 대한 경계의 영향; 8. 월경적(越境的) 관계들; 9. 경계설정의 영향 (경계의 변동을 포함.); 10. 경계의 이완된과 경계의 극복의 영향; 11. 난민을 위한 정주공간으로서 접경지역; 12. 정치적 내부경계

Heller의 분류에서는 Minghi의 분류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은 경계연구에 대한 주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Heller는 연구주제에 따른 분류이외에도 경계와 접경지역에 따른 이론적 방법론적인 연구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연구경향을 경계연구의 주제들과 접목시키려고 하였다. 끝으로 그는 정치지리학의 큰 틀 안에 경계연구를 배속시키려고 하였다. 지리학적 경계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들을 파악할 수 있다.

1. 결정론적 접근; 2. 경관지리학적 접근; 3. 사회지리학적 접근; 4. 입지론적 접근; 5. 행태과학적 접근; 6. 이주이론적 접근

Bürkner (1996)는 Heller의 분류를 바탕으로, 지리학적 경계연구를 개관하였다. 그에 따르면 (동중부 유럽의 정치적 변혁 전후에 관계되는) 경계연구는 3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다.

1) 밍기(Minghi)는 접경지역 연구에 대한 포괄적인 조망을 하였는데, 그는 여기에서 단지 1960년대까지의 연구를 다루었으며, 접경지역 보다는 경계 자체에 대하여 보다 중점을 두었다. 이에 대한 이유는 경계연구에 대한 대부분의 논문이 제이차 세계대전 중 혹은 바로 직후에 쓰여졌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국경갈등에 대한 이유, 그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연구의 주요한 내용이었다. 특히 전후 새로운 국경을 정하는데 다양한 의견과 근거를 정치지리학에서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비해 평화로운 시절에 경계에 대한 연구의 관심이 적었다 (Minghi, 1991, p.17). 밍기(Minghi)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지리학적 경계연구에서 이루어졌다. 1. 분쟁이 심한 지역에 대한 연구; 2. 국경변화의 영향에 대한 연구; 3. 국경의 발전에 대한 연구; 4. 경계의 설정과 확장에 대한 연구; 5. 본토와 분리된 영토(Exklaven)나 소국가에 대한 연구; 6. 해상의 국경에 대한 연구; 7. 내부 경계에 관한 연구

1. 공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주변지역으로서 접경지역; 2. 상이한 영역에서 경계를 넘어서는 연관관계; 3.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행동에 대한 경계의 영향

지금까지 연구된 논문에 대한 그의 분석에 따르면, 경계연구의 이론적 규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경계의 양쪽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의 차이와 상이한 개발정책의 역할이 충분하게 이론적으로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고; 2. 국제적인 불균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그것이 관련지역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부족하다.; 3. 사회구조와 사회체제 사이에 차별화가 부족함. 두 개의 사회체제가 접하게 될 때 두 사회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특징들에 대한 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Rumley와 Minghi (1991)는 지금까지의 경계연구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면서 시의에 적합한 경계연구를 위한 미래의 방향을 확인하고 기술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이 확인한 방향에는 비교분석을 통한 맥락적으로 유사한 범주의 경관이론의 개발가능성, 정치적 발전 연구를 위한 가능한 기여, 경계연구의 체계화와 접경지역 경관과정의 파악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최근에는 접경지역 연구에서 행위자 중심의 접근 - 접경지역의 경관 혹은 소여보다는 인간의 역할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 대두하였다. 사실상 이미 1980년대 초에 Leimgruber (1980)는 행위자 중심의 접경지역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실행하였다. 그에 따르면, 서로 다른 주체들에 의해 경계는 고정되거나 주어진 것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또한 상이성 이외에도 접경지역 양쪽에서, 의 공통성도 연구에서 고려해야한다. 그는 경계가 사회적 현상처럼 동적인 현상이며 또한 인간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해당 주민의 삶은 경계가 설정된 후에 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경계는 인간에 의해 규정되며 확정된다. 결국 경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일정기간 지속되는 현상으로 파악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는 또한 인간에 의한 경계의 지각 연구에서 인간행태적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접경지역에 대한 이미지의 지각도 조사된 인간집단에 따라 상이함을 밝히게 되었다 (Leimgruber, 1991)

Riedel의 의견에 의하면, 행위자 중심의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 한가지 중요한 점은 경계의 영향을 개인의 행동공간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경제지리학적 차원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그는 문화심리학적 입장에서 행위자 중심의 경계연구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독일-프랑스의 국경 한 부분의 주민들이 갖는 경계와 접경지역에 대한 공간지각을 분석하였다. 그는 국가적 및 국경을 초월하는 입장에서 설문자의 정체성에 대한 진술이 가능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확인된 독특한 멘탈리티가 조명되어야한다고 보았다 (Riedel, 1994).

3) 경계연구의 최근 주요 연구 주제

중동부유럽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조사는 1990년대 이후 다양한 형태로 이슈화되었는데, 여기서는 그에 대한 몇가지 주제를 소개하기로 하겠다.

(1) 경제적 협력관계

아마도 1990년대 들어 가장 활발한 주제중의 하나이며, 월경협력이라는 큰 틀에 포함될 수 있지만, 경제적 협력관계는 정치적 변동 이후 한층 강화되고 있으며, 서유럽 특히 독일은 자국과 국경을 넘어서 폴란드와 체코의 접경지역에 생산시설을 이주시켜, 생산비 절감을 달성하였다. 값싼 인건비와 느슨한 환경규제, 지리적으로 근접 때문에 1990년대 독일과 인접한 접경지역은 각광을 받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크래트케(Krätke, S)의 여러 차례의 독일과 폴란드 접경지역연구에서 두드러진다. 이 연구에서 월경적 경제연관관계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접경지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내의 기업간 협력이 보다 더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특징은 최종적으로 경제통합의 문제를 논한다.

(2) 월경적 지역협력

이 주제는 접경지역에서 궁극적으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초기의 단순한 경제협력을 벗어나서, 공동으로 지역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에서는 현재 유럽연합의 외각경계(Außengrenze)의 접경지역에 대한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Interreg Initiative 프로그램이다. 유럽연합에서는 특히 Interreg IIc 프로그램에서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현재는 Interreg III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동중부, 동부 유럽국가들의 체제전환과 함께 낙후한 접경지역을 유럽연합 타 회원국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3) 분단된 접경도시에 대한 연구

중동부 유럽에서, 특히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Oder-Neiße Linie)의 접경지역에는 과거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하나의 도시였던 곳이 독일과 폴란드의 새로운 국경설정 때문에 두개의 도시로 나누어진 곳이 많이 있다. 대표적인 도시의 쌍은, 독일의 Frankfurt 와 폴란드의 Słubice, 독일의 Guben과 폴란드의 Gubin, 독일의 Görlitz와 폴란드의 Zgorzelec이다. 타 지역에도 몇 개의 사례가 있지만 독일과 폴란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Waack(2002)는 접경지역의 분단된 도시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하면서, 3가지 접근법으로 구분하였다. 1. 규범적-분리적 접근(normative-dissociative approach) 2. 기능적-통합적 접근(functional-integrative approach) 3. 사회적-의사소통적 접근(social-communicative approach)

4. 요약

1990년대 이후 접경지역 연구는 특히 중부유럽과 동유럽의 정치적 변동에 의해,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접경지역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개방적인 공간으로 변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며, 유럽연합 차원에서 낙후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또한 지역통합을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공동협력 차원에서 이미 서유럽에서의 사례처럼, 여러개의 유러리전(Euroregion)의 형성을 통해 보다 활발한 접경지역간의 상호작용을 도모한다. 방법론적으로는 경관 중심의 경계연구가 1980년대부터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행위자 중심의 접근법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참고문헌

- Bürkner, H.-J., 1996, Geographische Grenzraumforschung vor neuen Herausforderungen -Forschungskonzeptionen vor und nach der politischen Wende in Ostmitteleuropa in Bürkner, H.-J. & H. Kowalke (eds.), Geographische Grenzraumforschung im Wandel, 1-11
- Heller, W, 1993, Politische Grenzen und Grenzräume aus anthropogeographischer Sicht, in Weisbrod (eds.), Grenzland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deutsch-deutschen Grenze, 173-194
- Riedel, W. 1994, Wahrnehmung von Grenzen und Grenzräumen (Arbeiten aus dem Geographischen Institut der Universitäten des Saarlandes 14)
- Rumley, D. & J. V. Minghi, 1991, The Geography of Border Landscapes